

# 행복과 고통이 교차하는 경험

상반기에 출간된 젊은 시인들의 시집을 읽으며

강상희  
문학평론가

반성적 사유가 극대화될 수 있는 미적 형식은 여전히 시이다. 특히 젊은 시인들의 시는 반성적 사유의 폭과 강도에 있어 그 어느 형식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폭넓음과 강렬함을 가진다. 그들의 시에는 일상의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문득 우리의 생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고, 친숙한 물상들을 발가벗김으로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의 허위와 억압을 폭로하는 진실성이 있다. 젊은 시인들의 시집을 읽는 것은 따라서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시를 읽다 보면 생의 분열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과 자기 각성의 행복감이 매순간 교차함을 느낄 수 있다. 상반기에 출간된 일단의 젊은 시인들의 시집 역시 우리를 그러한 경험 속으로 밀어넣는다.

## 단순하면서 강렬한 운율

안찬수의 첫시집 《아름다운 지옥》(문학동네)은 우선 80년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시적 정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미 최영미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와 김중식의 《황금빛 모서리》를 통해 그려진 바 있는 80년대의 지형도를 안찬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최영미의 요설과 감각성, 김중식의 치열한 정신적 탐색과는 달리 안찬수는 80년대를 ‘몸’과 밀착된 언어로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운율에 실린 시적 진술은 서정성과 풍자 그리고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각각 독특한 울림의 세계를 형성한다. 특히 지나간 연대에 대한 죄의식과 분노를 성찰과 재도약의 밑거름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3, 4부의 시들은 시적 성숙함의 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성숙은 물론 관념의 이월을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안찬수의 시들에는 “침묵하며 견디어 내는/아름다움도 있다는 것을……/더욱 굳건히 이땅에 뿌리내리는/시정신이야말로 소중한다는 것을……”과 같은, 촘촘하면서도 묵직한 시정신이 깔려 있다. 시집 말미에 수록된 〈기억 너은 그리고 사랑〉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감동을 주는 이유도 그 시정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찬수가 “한 발짝도 더는 나아갈 수 없는/백척간두에 서야하지 않겠는가”라는 결



젊은 시인들의 시는 반성적 사유의 폭과 강도에 있어 그 어느 형식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폭넓음과 강렬함을 가진다. 젊은 시인들의 시읽기는 따라서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의로써 앞으로의 시세계를 예고하고 있는데 비해, ‘아름다운 상처’를 지닌 시인 이용환은 《정신은 아프다》(실천문학)를 통해 일상인의 삶의 세계를 조명하는 시 작업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 60년대생에게 간주관성으로 존재하는 80년대를 그 역시 회고와 반성으로 돌아본다. 그 연대에서 이용환은 ‘풍경의 폐허’를 보고 있다. 폐허의 연대에 대한 회고와 반성은 비극적인 세계인식으로 확대되지만 그것은 시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회고와 반성이야말로 세기말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생애 부조된 역사의 흔적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정신은 아프다》연작에는 개인성을 보편성으로 비약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나 안정된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 3부의 시들과 여타 시들의 낙차는 의외로 큰

편이다. 그 낙차는 시인의 것만이 아니고 동시대의 젊음이 공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신은 아프다〉이후의 시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 하나가 거기에 있다.

## 비극적 세계인식

비극적 세계인식이라는 면에서 정해중은 이용환과 궤를 함께한다. 산업화의 파고에 묻혀버린 숲, 우물, 고향…… 이런 그리움의 대상들을 호명하는 정해중의 시어들에는 비장한 데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삶의 양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인들의 보편적인 운명이다.

정해중은 《우울증의 애인을 위하여》(고려원)에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가로막는 막강한 체계, “죽음만큼 훌륭한 상품도 없다”며 시인의 죽음조차 돈으로 만드는 도저한 물신주의 등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현실에 의해 억압되고 순치된 생의 욕망은 이제 시인으로 하여금 “꼭예처럼 아슬아슬한 나의 일상”을 가능케 할 뿐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인은 고향 ‘당정섬’을 꿈꾼다. 일탈의 한 형식으로서의 그리움. 그것은 무엇을 낳는가? 시인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와의 불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원의 시집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문학고지성)의 시적 주제는 익숙한 것이지만 시 형식의 과격성들로 인해 낯설고 두려운 것으로 화하고 있다. ‘복제된 세계’에 불과한 현실은 시인에게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장이다. 그의 비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콘크리트의 질감 같은 도시성에 대한 비판, 늑과도 같은 욕망과 권력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사람과 사람, 물상과 물상을 단절시킨다. 그 때문에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에서 주된 시적 상황은 ‘단혀 있는’ 상태로 설정된다. 이 단혀 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더이상 주체가 아니다. 〈내 집처럼, 낯설게〉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의 주체는 교환가치로서의 물상들이다. 따라서 삶의 터전의 비유인 대지를 잃어버린 시인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지향하려는’ 것이 된다. 플러그, 길, 마네킹 등은 이 지향과 연장(延長)의 이미지들이다. 이 지향은 궁극적으로 ‘공기’로 향해져 있다. 공기의 상상력, 이는 바슐라르의 것이었지만 이제 시인 이원의 것이 되고 있다. 상상력의 한 방향인 구체화가 다소 미약한 것은 그가 이제 막 꿈꾸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 이질적인 이미지의 병치

상상력에 관한 한 박상순의 시집 《마리나, 포르노 만화의 주인공》(세계사)은 이원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의 초현실적인 발상들은 독자들을 당혹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질적인 이미지의 병치와 시적 진술의 비약으로 인해 그의 시들은 일단 소통영역 밖에 놓인다. 서정 양식의 기본 원리인 객체의 주관화가 그 극단으로 내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극단화의 방식으로 박상순은 회화적 상상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 상상력은 〈나는 시간을 만든다〉에서처럼 가장 추상적인 시간조차 구상화하는 힘을 갖는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상력과 다른 차원의 환기력을 지니게 된다. 이제 그의 시에서 우리 주위의 물상들은 상투적인 물성(物性)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상으로 재창조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능케 해주었던 기표와 기의의 평균적인 결합도 깨져 나간다. 그 재창조와 파열은 내면성을 요구한다. 서술을 배제한 내면성의 추구, 이것은 새롭다. 새로운 만큼 낯설다. 그 낯설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독자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